

## 10/5(화) 데살로니가후서 묵상 8

### 데살로니가후서 3:3-6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과 선교팀을 위한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교훈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 신실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맡기고 있습니다(3절,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기서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기’를 먼저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시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신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같은 사실은 우리가 주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4절,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굳건한 믿음은 이제 그들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있어 스스로 행할 힘과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섬기는 신앙이 어린 성도들이나 또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 부모와 리더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령 우리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것은 먼저 부모가 신실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가든지 악한 자에게서 스스로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간구를 합니다(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지 또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사랑’인지 구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 두 개가 서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책임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엡 4: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울은 이 서신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잘못된 진리에 빠진 자들에 대한 엄중한 교훈을 내립니다(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교훈이 엄중한 것은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경고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형제’라는 호칭이 두 번씩이나 나타납니다. 첫번째 형제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두번째 형제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자들입니다. 당시에 임박한 종말론의 영향으로 인해 일부 신자들 중에는 자신이 하던 일을 그만두고 무위도식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살전 5:14,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바울이 이들로부터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아무런 책망과 경고도 없이 모든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먼저 훈계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딤후 3:10,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 하지만 바울이 그런 형제들에 대해서 이같이 엄중한 처리를 명령하는 이유는 훈계한 이후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히려 잘못된 진리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의 교회가 무엇보다도 진리의 거룩성을 반드시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엡 5: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본질과 거룩성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무위도식 하는 모습을 엄중하게 경고한 것은 그들이 교회의 본질을 훼손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것은 무엇보다도 교회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이고 또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는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께서서 운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신실하게 선포되고 모든 사역이 말씀의 원리대로 실천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모임이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신자 각 개인의 삶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주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미국장로교단(PCUSA):** 미국장로교단이 신학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하게 하소서. 교단 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더욱 많아져서 교단의 신학이 다시 개혁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각 위원회를 위해 중보합니다. 오늘은 재정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인도네시아 하영광 선교사님/가정/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